



임실군 사선대 국민관광지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사선대 국민관광지, 명소로 '우뚛'

임실군, 어린이 놀이터에 투호·제기 즐기는 공간 새롭게 마련

임실군 사선대 국민관광지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난 4일 임실군 공공관리사업소에 따르면 관촌 사선대 국민관광지 어린이놀이터에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공간을 마련하는가 하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장미아치터널을 조성했다.

관촌 사선대국민관광지에는 관광객과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돼 있다. 이 공간에는 최근 전통놀이인 투호와 제기를 즐기는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다. 투호놀이와 제기차기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전통 놀이다. 투호는 옛적 백제 사람들과 고구려 사람들이 즐겼던 놀이로, 지금은 고궁이나 명절에 많이 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제기차기는 간단한 운동이지만, 정신운동으로서 다이어트 및 폐활량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옆에는 3월에 식재한 목단과 작약이 꽃봉오리를 여물며 관광객 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관촌 사선대 국민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장미아치도 조성됐다. 사선대 관광지내 뒤편에 설치돼 장미아치터널에 넝쿨장미 250본을 식재

한 아름다운 터널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군은 사선대 조각공원 10곳에 장미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밑에 영국장미 10여종 70본을 식재했다. 사선대 곳곳에 철쭉 및 라일락 등이 피어나 향기 가득한 곳에 장미의 향기가 함께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선대 국민관광지가 명칭을 걸맞게 국민관광지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가족과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담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생긴다

군, 문화의집 1층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이달 본격 착수

순창군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장난감 구입 걱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군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계를 완료하고 5월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장난감을 대출해주는 시스템으로 부모들의 장난감 구입비용을 절감해 경제적 효과도 있고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힘든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해 유아들의 창의성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군은 문화의 집 1층 작은도서관 공간을 장난감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는 한편 기존 시설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3억 6천만원을 투자한다. 규모는 175.7㎡로 장난감 대여

실, 역할 놀이실, 놀이터, 장난감 소독실이 들어선다. 장난감 대여는 물론 아이들이 이곳에서 간단한 놀이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 도서관을 찾는 부모들을 위해 수유실과 북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해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생치, 복층 등 읍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면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택배 배달서비스도 진행해 소외받는 지역이 없고 이용률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인은 연회비 2만원에 보육시설은 연 5만원으로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대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8월까지 리모델링

과 장난감 구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우리군의 아이들과 여성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면서 "장난감 도서관은 그동안 고가의 장난감을 구입해야 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다양한 장난감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빠른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설치 사업 이외에도 일품공원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 장애물 미끄럼틀설치, 어린이용 안베타기, 소규모 배드민턴 장등 야외 운동기구 설치 사업도 올해 완료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어린이 가족사랑 큰잔치 성료

1000명 참석... 아동복지 유공자 상장 수여식도

남원시는 최근 '제95회 어린이 날'을 맞아 사랑의 광장에서 어린이 및 가족, 초청인사, 시민, 관련단체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가족사랑 큰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남원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서봉순) 주관으로 축하공연인 단체 장기자랑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여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남원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미래의 주인공이다. 꿈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고, 아동복지 유공자(에덴지

지역 소식통

임실, 전문 농업인 육성 '앞장'

임실군은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 교육'을 실시해 지역 농업을 이끌 전문농업인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대학 버섯 재배반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전문 농가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오는 30일까지 6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와 농업기술원 박사 등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종균배지 제조, 살균, 접종 및 배양 등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30여명이 참여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오는 6월과 9월 실시되는 필기와 실기시험 전원 합격을 목표로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시, 소나무 활용 도시 사업 추진

남원시는 자발적으로 기증의사를 밝힌 기증자들의 소나무 109주를 주요 도심지 내 도시숲 조성사업지로 식재하고 있다. 소나무 49주를 기증한 송동면 신평리의 이규호씨는 별채예정지인 개인 소유 임야의 소나무가 본인 사후에도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남원시 조성수로 기증하고 싶다는 뜻에 따라 금년 개장을 앞둔 운봉읍 주촌리 예로못지 조성지, 오토캠핑장 조성지와 금지면 김주열 열사공원, 노암동 소리체험관 등에 식재하였다. 기증한 소나무의 규격은 수고 8~12m, 근원직경 35~75cm까지 다양하다. 또한 밭에 묘목을 심어 10년 동안 정성 들여 키운 소나무를 기증하신 대신면 운교리 박환표씨의 소나무 58주는 운봉읍 주촌리의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주변에 식재하였고, 소나무 2주를 기증하신 도룡동 김주환씨의 소나무는 남원의 관문인 남원IC 교통섬에 식재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선발대회 수상자 남원 홍보대사 위촉

제87회 순창선발대회 수상자에 대한 남원시 홍보대사 위촉식이 최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촉식에는 이환주 시장과 안숙선 순창 재전위원장 비롯하여 11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제87회 순창선발대회 순창 진 박지승양과 함께 6명이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순창의 고귀한 정신과 남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환주 시장은 우리지역의 자랑이자 대표 민속문화인 순창의 일을 항상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계로 진출 시 남원시 문화관광 홍보대사로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순창홍보대사로 위촉된 순창수상자는 위촉식 후 순창사람 가족 힐링 걷기, 사랑춤, 지금은 순창시대등 행사 등을 통하여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매년 선별되는 순창 수상자를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으며, 순창홍보대사는 국내외 관광, 축제,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에 참가해 남원과 순창문화의 홍보 행사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영농철 현장 출장 강화

순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영농현장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출장 서비스를 강화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매주 화요일을 현장 출장의 날로 정하고 전 직원이 영농현장에 직접 찾아가 현장중심 기술지도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봄 영농철 바쁜 일손으로 농민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렵고 또 현장에서 직접 기술지도를 통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최근 모내기 철을 맞아 모내기 작기지도와 품목별 전문가가 각 품목현장을 찾아 상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의 참종다

귀농·귀촌 최적지 순창
순창이 참종다!
순창 귀농은 더 종다!

순창군 귀농·귀촌 상담전화
063)650-5172~5174

순창군 귀농·귀촌 홈페이지
www.gosunchang.com

순창군